

[어휘 능력]

1. 문장을 <보기>처럼 알맞게 띄어 읽은 것은?

<보기>

▶ 글의 뜻이 잘 드러나게 띄어 읽는 방법

- 한 문장을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누어, ‘누가(무엇이)’ 다음에 조금 쉬어 읽기
- ‘누가(무엇이)’에 해당하는 말의 앞부분이나 뒷부분이 길면 한 번 더 쉬어 읽기
예) 나무 위에서 마주 선√수컷 사슴벌레는√큰턱을 맞대고√상대를 밀어붙여요.

- ① 새끼 고양이는√가냘픈 울음소리를 내더니√앞으로 나왔다.
- ② 고양이는 자기가√살던 곳에서√멀리 안 가는√습성이 있어.
- ③ ‘생명’이라는 도아의 말에√우진이는 아무런√대꾸도 하지 못했다.
- ④ 이리저리 움직이던√레기는√구석에 있는 낡은√방석에 자리를 잡았다.
- ⑤ 우진이의√외침에 움찔했던 레기는√아장아장√다가와서 발에 매달렸다.

[비판적 이해 능력]

2. 아래 작가의 말을 읽고 책임감에 대해 한 생각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우리가 사는 사회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의 보이지 않는 약속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신호 등이 빨간불이 아니라 파란불일 때 건너고, 길거리에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지요. 이처럼 사회 구성원으로서 약속을 지키는 책임감이 필요해요.

책임감은 나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이에요. 누군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 피해를 입거든요.

- ① 나이가 어려도 책임감이 강한 도아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태도를 갖추고 있는 아이구나.
- ② 교실 꾸미기에 열심히 참여한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이 될 것 같아.
- ③ 고양이 털 알레르기가 있는 우진이 엄마가 삼 고양이를 돌본 것은 책임감 있는 어른이기 때문이네.
- ④ 우진이가 빠졌어도 교실이 잘 꾸며진 것을 보면 책임감은 다른 누군가에게 미루어도 되는 일이구나.
- ⑤ 사람들이 사회의 보이지 않는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서로 싸우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3. 아래에서 설명하는 ‘경계선’과 관계있는 상황으로 알맞은 것은?

저마다 자신이 편안함을 느끼는 정도가 달라요. 그 정도를 벗어나서 불편해지는 경계를 ‘경계선’이라고 해요. 우리는 자신의 경계선을 존중받지 못할 때 불편함을 느껴요. 낯선 사람이 너무 가까이 다가오거나 갑자기 몸을 만진다면 기분이 좋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내가 정한 경계선을 넘어와서 불쾌함을 느꼈을 때는 확실하게 싫다고 표현해야 해요.



[사실적 이해 능력]

4. 숲속 마을에서 있었던 일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마을 주민들이 아침 식당을 연다는 광고문을 보고 떠드는 소리에 조용하던 시골 마을이 소란스러워졌다.
- ② 마을 입구에 예쁜 나무집이 완성되어 가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기대와 호기심으로 가게 문 열기를 기다렸다.
- ③ 아침 식당이 개업하는 날, 길게 줄을 서며 기다렸던 손님들은 음식이 제때 나오지 않자 화를 내며 돌아가 버렸다.
- ④ 무엇이 문제였는지 곰곰이 생각한 나무늘보 아가씨는 자신의 동작이 너무 느린 것을 깨닫고 새로운 운영 방식을 찾으려 노력했다.
- ⑤ 더 나은 운영 방식을 찾던 나무늘보 아가씨가 신메뉴를 개발하고 손님들이 원하는 요리를 다 만들어 주면서 맛집으로 유명한 가게가 되었다.

[통합 사고 능력]

5. 이 책을 읽은 어린이가 아랫글을 보고 한 생각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1955년 12월 1일이었어. 그날 저녁은 추웠고 이제 막 버스에 올라탄 로자는 일터에서 돌아온 수많은 유색인 가운데 하나였지. 로자는 내 옆에 앉았어. 흑인 몇 명은 서 있어야 했지만 백인은 모두 자리에 앉았지.

다음 정거장에서 백인들이 타자 운전수는 흑인들은 일어나서 백인들에게 자리를 내주라고 소리쳤어. 그런데 로자는 꿈쩍하지 않고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어. 운전수는 버스를 길가에 세웠어. 그리고 로자에게 명령했어.

“일어나! 신사분에게 네 자리를 내드리란 말야!”

“아니오! 일어나지 않겠어요.”

로자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어. 화가 난 운전수는 경찰관을 데려왔고 로자는 수갑을 찬 채로 끌려갔어.

이 일을 계기로 흑인들은 버스 안 타기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어. 일 년 동안 흑인들이 아무도 버스를 타지 않았기 때문에 버스 회사들은 파산 상태에 이르렀고 많은 운전수가 일자리를 잃었어. 마침내 1956년, 로자가 “아니오!”라고 말한 지 일 년 뒤에 대법원에서는 인종 차별법이 법에 어긋난다고 선언했지.

- 《로자 파크스의 버스》(담푸스), 재구성 -

* 유색인: 백인을 뺀 나머지 인종.

- ① 자리를 양보하라는 운전수에게 로자가 말한 ‘아니오!’는 ‘싫어’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다.
- ② 다른 사람들이 모두 따르는 일에 로자처럼 ‘아니오!’라고 말하려면 아주 큰 용기가 필요하다.
- ③ 로자가 끌려간 뒤에 일 년 동안 버스 안 타기 운동을 벌인 흑인들은 ‘싫어’라고 말하는 것이 어려웠나 보다.
- ④ 로자처럼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 ‘싫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
- ⑤ 앞으로 피부색이나 생김새가 다르다고 다문화 친구를 놀리는 아이가 있으면 나도 로자처럼 용기를 내어 그것은 나쁜 일이니 멈추라고 말해야겠다.